

## 세심히 마음쓰신 문제

2014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을 찾으시였다.

이날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보아주시면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향수진렬대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당시 진렬대에는 공장에서 생산한 살림방과 사무실 등에서 리용하는 위생 향수들이 있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여러가지 색깔의 향수들을 번갈아보시며 이 향수들이 서로 다른 향수인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의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어느한 향수병을 드시더니 마개를 열고 냄새를 가늠해보시고 향수병을 다시금 여겨보시였다.

잠시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상표를 용도에 맞게 만들어 붙일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향수는 용도에 따라 병모양도 달라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이렇듯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들에게 가당게 될 제품이라면 제일 훌륭하면서도 나무랄데없이 완벽한것으로 되게 하시려 자그마한 향수병의 형태와 상표에 대해서도 세심히 마음쓰시였다.